



[월간 노동시장 모니터]
2015년 2월 노동시장 분석

2015.3.19 | 김수현_새사연 연구원 | sida7@saesayon.org

2015년 2월 주요 고용동향

□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2015년 2월 고용률은 58.8%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 실업률은 4.6%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
- 경제활동참가율은 61.6%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 고용지표 개선 지속. 중고령층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가 지속적으로 확대된 가운데 졸업 시점을 맞은 청년층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함에 따라 실업률 및 경제활동참가율은 지난 1월에 비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1.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각 연도 2월 (단위 : %)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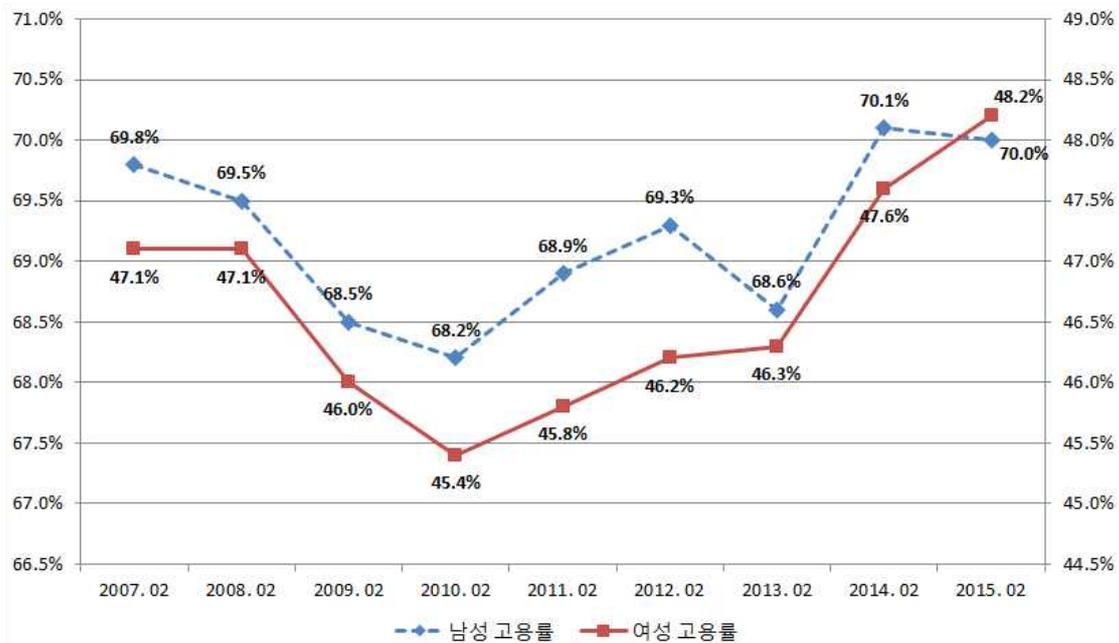
※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은 좌측 축, 실업률은 우측 축 참조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애주세요.



- 성별로 보면 남성 고용률은 70.0%, 여성 고용률은 48.2%로 나타남
- 남성 고용률은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한 반면, 여성 고용률은 0.6%p 상승함. 2015년 들어서도 여성 고용률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음
- 이는 노동시장에 참여해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음을 의미함. 하지만 여전히 남성과의 고용률 격차는 20%p 이상이고, 다른 OECD 회원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성 고용률이 낮은 상황임
-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확대는 새로운 경제성장을 위한 동력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국가 차원의 정책적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하지만 장기경제성장, 장기고용확대를 고려했을 때 단순히 수적·양적 확대가 아닌, 노동시장의 질적 측면에서의 개선을 동반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임

그림 2. 성별 고용률 변화 추이, 각 연도 2월 (단위 : %)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남성 고용률은 좌측 축, 여성 고용률은 우측 축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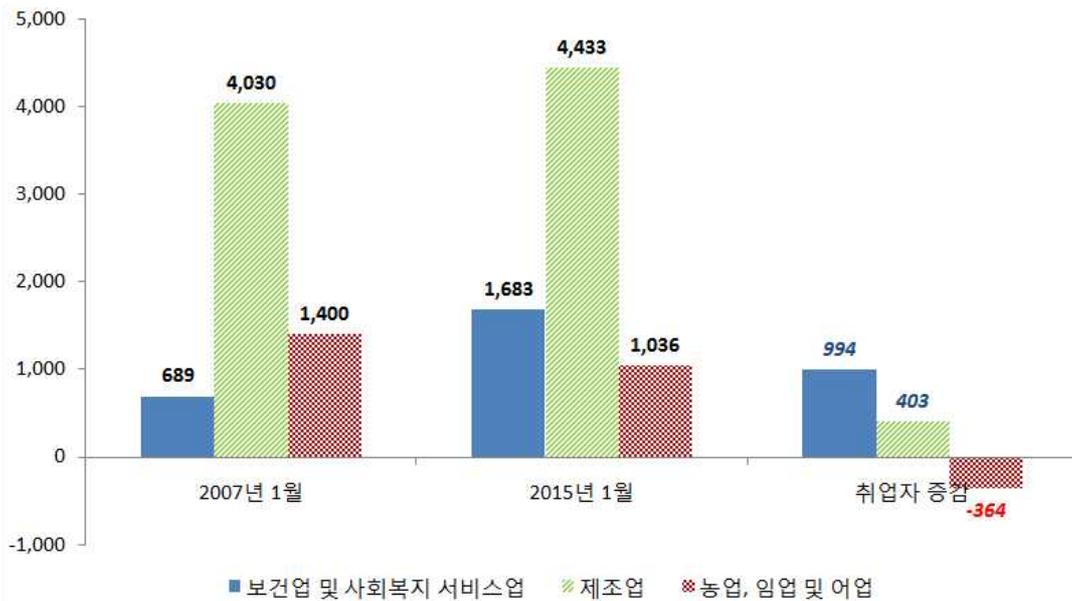
□ 취업자

- 취업자는 2,519만 5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7만 6천 명 증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2014년도 후반기에 비해 증가 규모가 줄어들었음
- 산업별로 보면 전년동월대비 제조업(15만 9천 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3만 5천 명), 숙박 및 음식점업(8만 1천 명), 건설업(6만 8천 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증가한 반면, 농림어업(-8만 7천 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7만 1천명), 금융 및 보험업(-6만 8천 명),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2만 6천 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감소함



- 전년동월과 비교해 제조업에서의 취업자 증가가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남. 금융위기 직후 400만 명 미만으로 떨어졌던 제조업 취업자 수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여 2015년 2월 현재 443만 3천 명으로 늘어남
-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취업자 수 역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이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민간 수요 증대에 따른 결과로 2015년 2월 현재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종사자는 168만 3천 명임
- 반면, 농림어업 종사자 수는 지속적인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2월 140만 명이던 농림어업 종사자 수는 2015년 2월에는 103만 6천 명으로 줄어들었음
- 농림어업 종사자의 감소와 함께 최근에는 금융 및 보험업에서도 취업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에서 역시 취업자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내는데, 이는 정부의 공공근로와 관련된 계약이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음. 공공근로나 공공에서의 일자리 계약이 성사될 경우 해당 산업의 취업자 증대되는 한편, 전체 취업자 증가폭 역시 커질 것으로 보임

그림 3. 제조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농림어업 취업자 변화 (단위 :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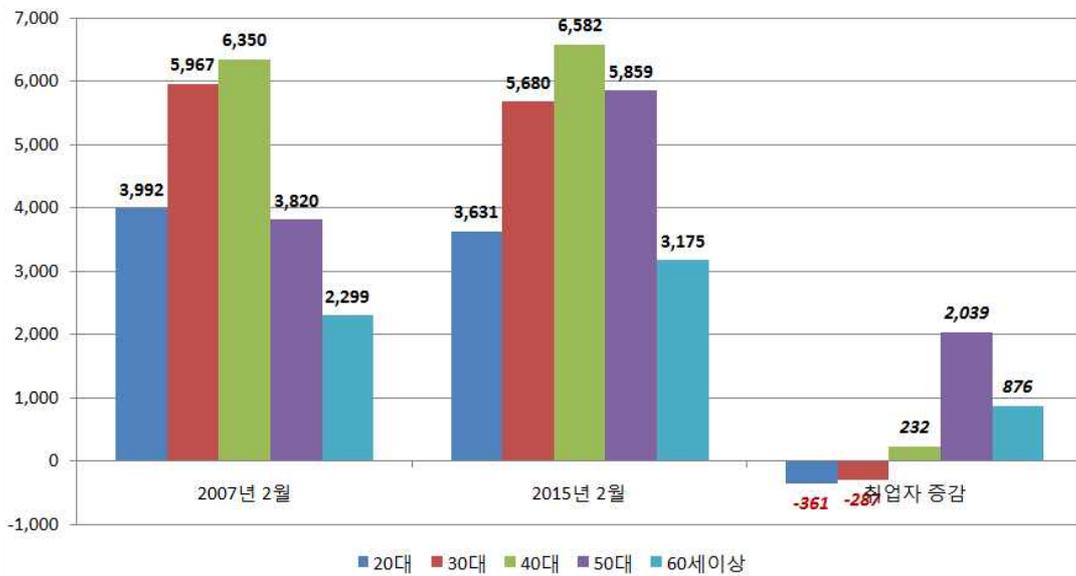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성별로 보면 남성 취업자는 1,466만 2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4만 4천 명이 증가했고, 여성은 1,053만 3천 명으로 23만 2천 명 증가함. 취업자 수 증가에 있어서도 여성이 두드러짐
- 연령계층별로 최근 몇 년 동안과 마찬가지로 50대와 60세 이상 취업자의 증가가



- 두드러짐을 확인할 수 있음. 금융위기 이전과 비교해 50대와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크게 증가한 반면, 20대와 30대 취업자 수는 감소함
- 전년동월대비 50대 취업자 수는 18만 3천 명,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19만 3천 명이 증가함. 이런 중고령층 취업자 수 증가는 중고령층 인구 증가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20대와 30대 청년층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각각 4만 4천 명, 1만 8천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여전히 낮은 청년층 취업자 수를 고려했을 때 청년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정부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그림 4. 연령계층별 취업자 수 변화 (단위 : 천 명)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

- 실업자는 120만 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만 4천 명 증가함.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의 비중을 나타내는 실업률은 4.6%임
- 하지만 실업자와 함께 잠재경제활동인구¹⁾,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²⁾를 광의의 실업자를 보고, 이들 광의의 실업자가 잠재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하는 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광의의 실업률(통계청 : 고용보조지표³⁾)은 12.5%

1) 잠재경제활동인구 : 잠재취업가능자와 잠재구직자의 합계. 여기서 잠재취업가능자는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지난 3주간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조사대상주간에 취업이 가능하지 않은 자를 가리키며, 잠재구직자는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은 하지 않았지만, 조사대상주간에 취업을 희망하고 일자리가 주어진다면 취업이 가능한 자를 의미함

2)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 취업자 중에서 실제 취업시간이 36시간 미만이면, 추가 취업을 희망하고 일자리가 주어진다면 추가로 취업이 가능한 자

3) 고용보조지표³ = $\frac{\text{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 \text{실업자} + \text{잠재경제활동인구}}{\text{경제활동인구} + \text{잠재경제활동인구}}$



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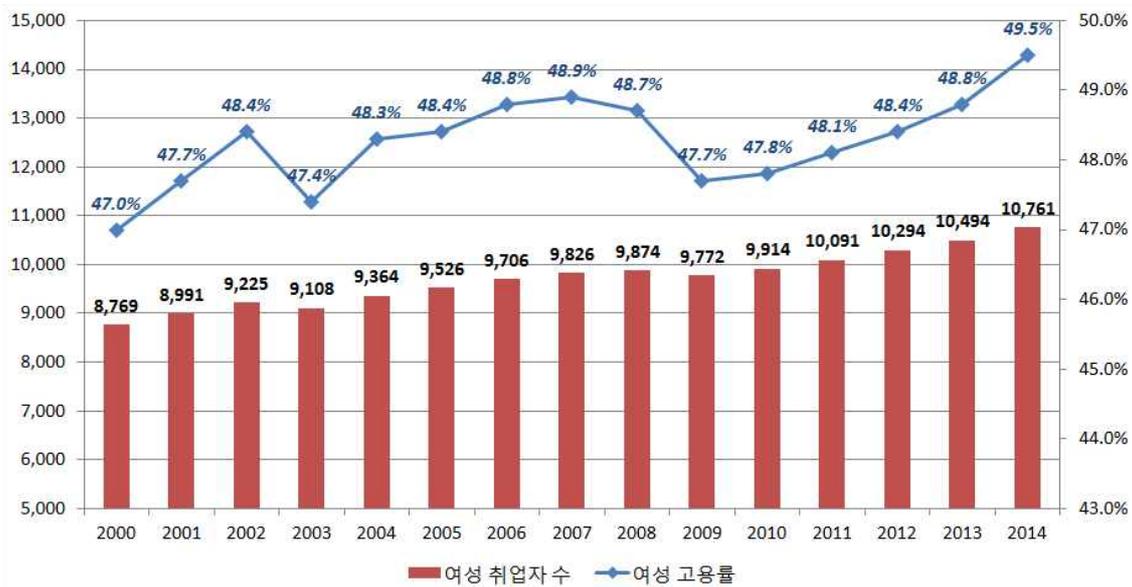
- 비경제활동인구는 1,642만 9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만 3천 명 증가함
- 성별로 보면 남성은 562만 9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만 1천 명 증가한 반면, 여성은 1,080만 1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천 명 감소함.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확대에 의해 여성 비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비경제활동인구의 다수는 여성임
- 공식 실업률보다 광의의 실업률이 높은 이유는 실업 상태로 보아야 할 이들 중 다수가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기 때문임. 여성, 청년층 등 고용취약계층에서의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해 정부는 관심을 가지고 분석할 필요가 있음

줄지 않는 남성과 여성 노동자 사이의 임금격차

□ 여성 노동자 1,000만 시대

- 107주년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은 2015년 현재 1,000만 명이 넘는 여성들이 노동 시장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
- 여성 취업자 수는 지난 2011년 1,000만 명을 넘어선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지난 2014년의 여성 취업자 수는 1,076만 1천 명임
- 금융위기 전후 줄어들었던 여성 고용률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2014년 여성 고용률은 49.5%로 이는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임

그림 5. 여성 취업자 수 및 고용률 추이 (단위 : 천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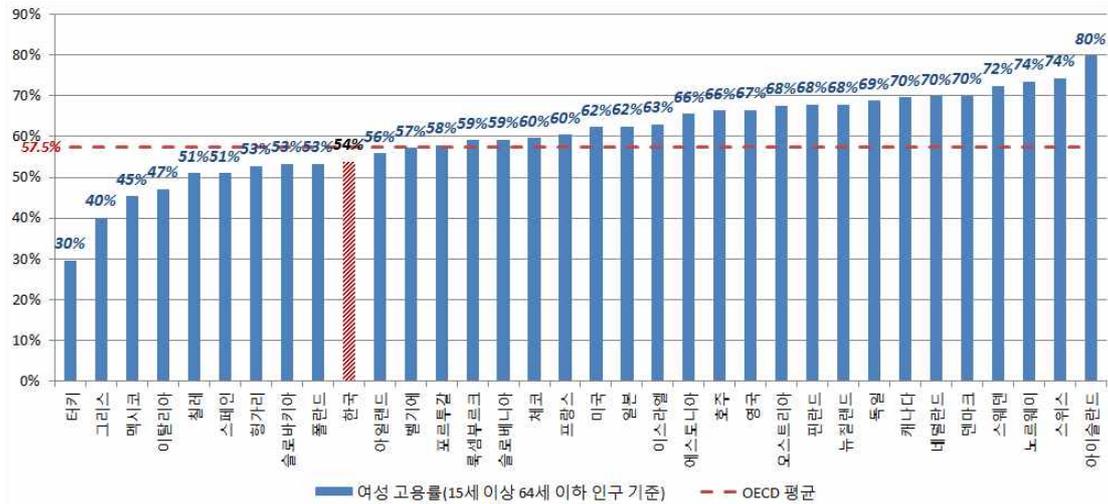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여성 취업자 수는 좌측 축, 여성 고용률은 우측 축 참조



- 하지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여성 고용률은 OECD 회원국 중에는 그리 높지 않은 수준임
- 2013년 OECD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여성 고용률(15세~64세 인구 기준)은 OECD 회원국 평균에 미치지 못함
- 유럽이나 미국 등 선진국과 비교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주변국인 일본보다도 낮은 수준임

그림 6. OECD 회원국의 여성 고용률 (15세 이상 64세 이하 인구 기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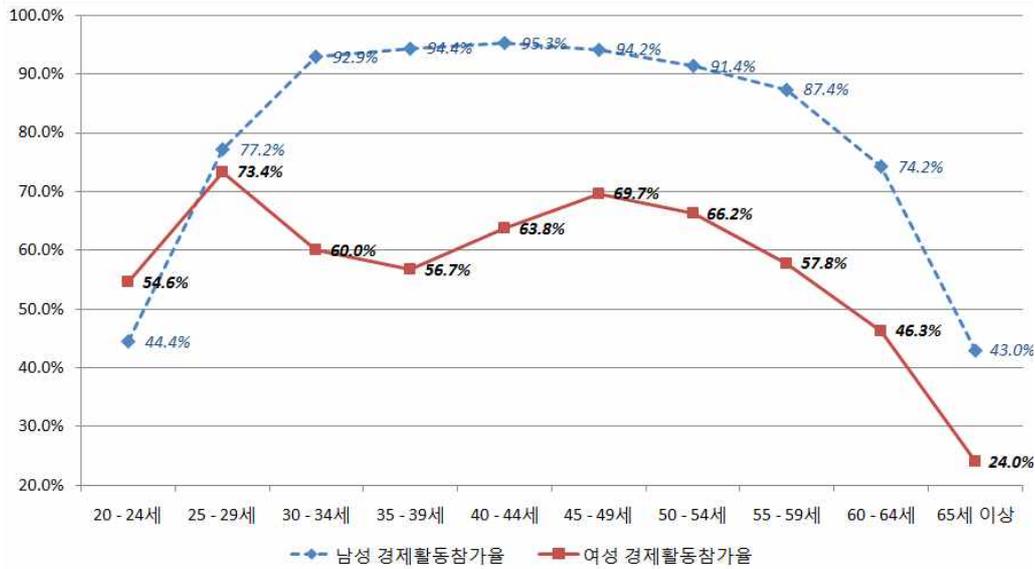


출처 : OECD 홈페이지 통계자료

- 이와 같이 OECD 회원국을 기준으로 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우리나라의 여성 고용률의 원인으로서는 결혼,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됨
- 연령대별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또는 고용률을 살펴보면 20대에는 높았던 경제활동참가율(또는 고용률)이 30대에 줄었다 40대에 다시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이러한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M자형 노동공급곡선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결혼,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로 인한 결과로 알려져 있으며, 이런 특성으로 인해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나 고용률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여성 고용률이 높은 선진국들에서는 이와 같은 M자형 여성 노동공급곡선이 나타나지 않음
- 경제성장에 있어 여성 노동자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고려했을 때 여성 고용률을 낮추는 경력단절을 막고 더 많은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그림 7. 성별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 (2014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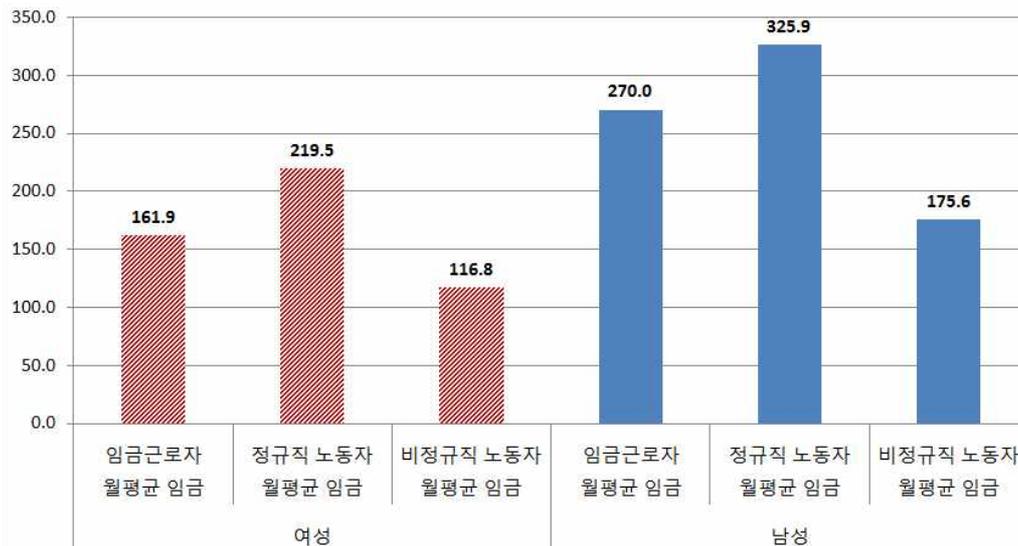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여전한 성별 임금격차

- 최근 여성 취업자의 수가 증가하고 고용률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여성과 남성의 성별 임금격차는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남
- 2014년 8월 현재 여성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61만 9천 원으로 남성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270만 원보다 100만 원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8. 성별 (월평균) 임금 수준 비교 (단위 : 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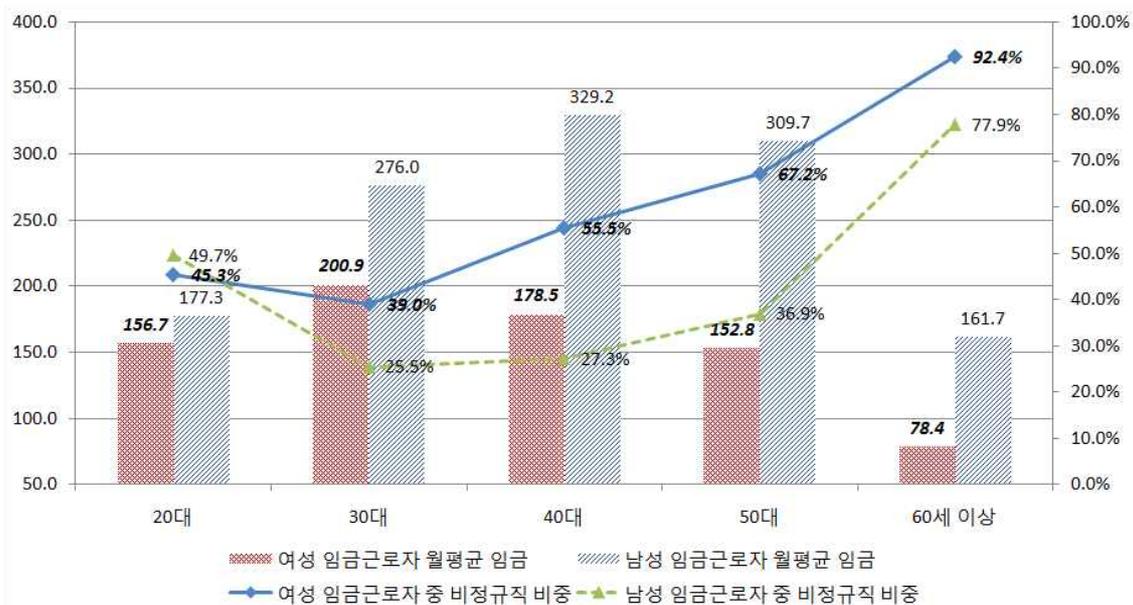


출처 : 통계청 2014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자료 이용 추계



- 정규직과 비정규직⁴⁾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역시 각각에서 큰 성별 임금격차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성별 임금격차의 원인으로는 유리천장이 여전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됨. 여기서 유리천장은 여전히 높은 임금을 받는, 높은 지위의 일자리에서 진입하는 여성의 비중이 작은 현실을 반영함
- 또한 여성의 비정규직 비중이 큰 것 역시 상대적으로 여성의 임금 수준을 낮추는 원인이 되고 있음. 비정규직, 특히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매우 낮은 수준인데, 여성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은 56.1%로 절반이 넘음. 남성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은 37.2%임
- 이런 높은 여성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 그리고 그에 따른 낮은 임금의 원인으로 여성의 경력단절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도 있음. 이는 경력단절 이후 다시 노동시장으로 나온 여성의 상당수는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 일자리에 직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임
- 통계청의 2014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자료를 이용해 살펴보면 경력단절이 발생하는 30대 이후 상대적으로 여성의 비정규직 노동자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9. 성별, 연령대별 월평균 임금 및 비정규직 비중 (단위 : 만 원, %)



출처 : 통계청 2014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자료 이용 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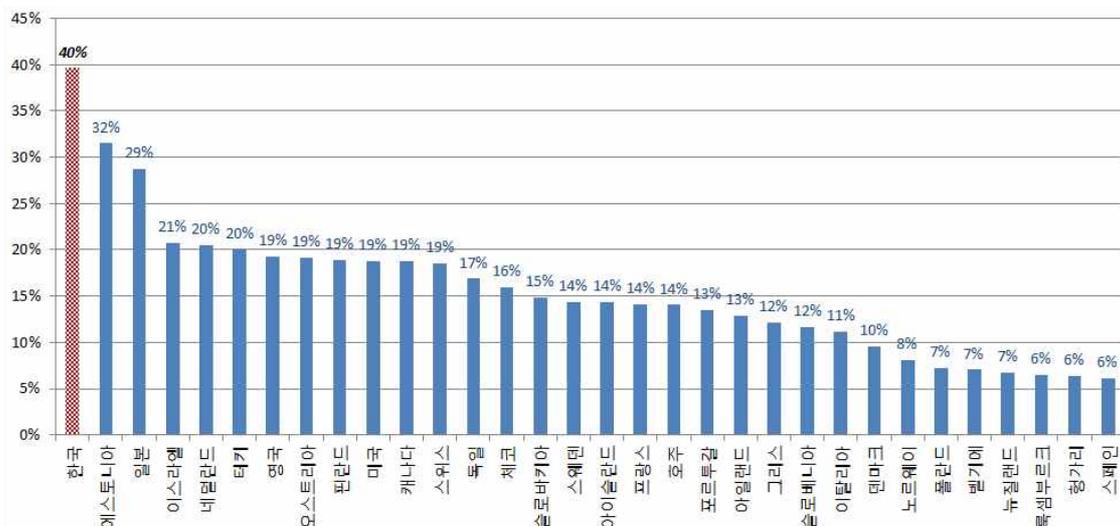
※ 월평균 임금은 좌측 축, 비정규직 비중은 우측 축 참조

4) 여기서는 “김유선 (2014)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에서의 비정규직 개념을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고 있음. 이는 정부가 규정하고 있는 고용형태에 따른 비정규직과 함께 종사상 지위에 있어 임시직과 일용직 역시 비정규직 노동자로 분류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이와 함께 여성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경력단절 이후 연령대에서 이전에 비해 낮아진다는 것을 볼 수 있음. 남성 임금근로자의 경우 30대보다 40대, 50대의 임금이 더 높은 반면, 여성 임금근로자의 경우 30대에 비해 40대, 50대의 임금 수준이 더 낮음
-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인한 노동시장 내 차별 역시 성별 임금 격차가 유지되는데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이야기됨. 동일한 일을 하더라도 여성의 경우 승진이나 교육훈련에 있어, 임금 수준에 있어 차별을 받는 경우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성별 임금격차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큰 수준에 해당됨. OECD는 전일제 노동자들을 기준으로, 여성 노동자의 중위 임금과 남성 노동자의 중위 임금 사이의 차이를 남성 노동자의 중위임금으로 나눈 값을 성별 임금격차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가장 많은 국가들의 정보가 있는 201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그림 10. OECD 회원국들의 성별 임금격차 (2010년 기준) (단위 : %)



출처 : OECD 홈페이지 통계자료

□ 성별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 방안 마련되어야

- 성별 임금격차가 계속될 경우 장기적으로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이는 생산에 참여하는 인구의 비중을 제약해 장기경제성장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 또한 불평등의 심화나 여성의 빈곤화와 같은 사회적 문제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음
- 그러므로 여성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여성 노동자들이 양질의 일자리로



이행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과 같은 성별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 마련되고 추진되어야 함.

2015년 새사연 발간 보고서 목록

2015년 3월 18일 현재

아젠다	발간일	제목	작성자
한국경제	1/8	'가상의 적' 앞세운 구조개혁의 속살	정태인
세계경제	1/12	약 엔, 강 위안, '슈퍼 달러' 의 시대 도래?	박형준
고용,노동	1/15	노동시장 유연화, 만능 열쇠가 될 수 있을까?	김수현
주거	1/22	소수자가 된 무주택 서민의 미래는?	강세진
돌봄	1/26	'좋은 돌봄' , 현 상황에서는 불가능	최정은
복지	2/3	복지 없는 노후는 '재앙' 이다	이은경
잇:북	2/11	2015년 전망보고서 종합 : 침체의 지속, 복지 축소 정책의 위기	미디어팀
고용,노동	2/16	허점투성이 월급으로 은폐되는 '장시간 노동'	이정아
고용,노동	2/24	월간 노동시장 모니터 : 2015년 1월 노동시장 분석	김수현
경제	2/27	복지국가로 가는 길, 한국은 지금 어디에?:①자본주의 다양성 모델들	박형준
경제	3/5	복지국가로 가는 길, 한국은 지금 어디에?:②한국사회경제모델의 나아갈 길	박형준
돌봄	3/9	아동학대와 CCTV 논란, 보육정책 방향	최정은
고용,노동	3/16	노인을 위한 나라가 아니다	이정아
고용,노동		월간 노동시장 모니터 : 2015년 2월 노동시장 분석	김수현